



**KB국민은행, '적십자회비' 3억원 기부**  
KB국민은행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를 방문해 적십자회비 3억원을 기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허인 KB국민은행장,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및 양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기부금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어린이와 어르신, 다문화 가족, 국내외 재해 이재민, 북한 이주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도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S-OIL,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후원금 전달**  
S-OIL은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돕기 위한 후원금 7000만원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S-OIL이 전달한 후원금은 센터를 퇴소하는 이주여성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생필품을 지원하고 이주여성들의 법률상담 및 사회복지 등을 돕는 이주여성 출신 통·번역 전문 상담 활동가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S-OIL



**종근당 예술지상 2019 증서 수여식**  
종근당홀딩스는 지난 5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종근당 예술지상 2019 증서 수여식'을 갖고 양유연, 이제, 유현경 등 3명을 올해의 지원 대상 미술작가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종근당홀딩스는 미술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두 차례의 비공개 심사를 통해 3명의 작가를 선정했다. (오른쪽 부터) 종근당홀딩스 우영수 대표, 유현경, 이제, 양유연 작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종근당홀딩스



**BC카드, 고객과 함께 디지털 결제 선도**  
BC카드는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BC카드 본사에서 BC카드 고객패널 'BC 내비게이터(Navigator)' 14기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새로 선발된 고객패널 BC Navigator 14기는 대학생·주부·직장인 등 일반인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12월 31일까지 10개월간 BC카드의 상품과 디지털 결제 플랫폼을 경험하고, 고객 관점의 아이디어를 도출하게 된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BC카드 홍보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BC카드

## 베트남 활동 '대학생 해외봉사단' 모집

한세예스24문화재단, 내달12일까지 한세예스24문화재단은 한국과 베트남의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담당할 '대학생 해외봉사단'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대학생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모집기간은 오는 18일부터 4월12일까지다. 선발과정은 서류심사와

두 차례 면접을 통해 진행되며 선정된 대학생 봉사단원들은 7월 23일부터 10박11일 동안 베트남 호치민외국어정보대학교(HUFLIT) 한국어학과 학생들과 함께 현지에서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왕복 항공료와 현지 체류비 등 봉사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한세예스24문화재단에서 전액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bada@

## 설득력 부족한 한국지엠



**김필수 역자 이야기**

국내 자동차 산업이 고비용 저생산 구조와 노조파업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지엠(GM)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지엠은 군산 공장 철폐 이후 정부에서 8000억 원이라는 공적 자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차를 만들어 점유율을 올리기도는 다른 곳에 눈길을 주면서 고민은 더욱 많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좋은 품질의 차량을 만들기 위해 조직을 집중시키기 보다 연구개발 조직과 생산 조직을 법안 분리해 진행하는 모습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최근 국내 4개 물류센터를 3개로 줄이는 부분도 고민을 제공하고 있으며, GM본사에서 지난 2017년 매각한 북스홀이나 오픈 관련 차량의 제작이 기존 부평공장에서 향후 빠져나가는 사례도 악조건이 누적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미

국 트럼프 정부의 수입차 25% 관세 부과 대상에서 완전히 자유스럽지 못해 향후에도 더욱 악화될 수 있는 모습이 더욱 고민된다.

수년 전 GM의 바라CEO가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한 제작사가 아닌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 완성업체로의 전환을 목표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비효율적인 공장을 철수하는 모습은 향후의 GM의 모습이라는 측면에서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경우도 실사 결과도 보지 않고 우선적으로 투입하면서 국내 존속의 조건을 걸었으나 과연 효과가 있는 지는 두고 봐야 한다. 공적자금 투입 이후 한국지엠의 행보는 개선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한 만큼 국민의 혈세를 투입할 만한 가치가 있었는지는 향후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행보를 보면 호주나 캐나다 같은 토사구팽의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군산공장 폐쇄 이후 군산 지역은 초토화됐고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상황이다. 부평은 핵심 공장이고 연구시설도 있는 만큼 당장은 아니어도 점차 물량이 줄

어들면서 희망 퇴직, 구조조정 등 다양한 아픔이 있겠지만 문제는 우선 창원공장이라 할 수 있다.

창원공장은 다마스, 라보, 스파크를 생산하는 지역이나 경차 점유율이나 인기도가 떨어지면서 더욱 고민은 많아지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향후 정리되는 대상은 창원공장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 철수하는 수순인 만큼 점차 고갈시키면서 인적 자원을 줄이고 결국 완전 철수하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군산공장 폐쇄의 님은꼴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지엠의 행보는 점유율 제고를 위한 노력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 공적자금 투입 효과를 느낄 수 없으며 도리어 철수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상황은 누적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에 있어서 신중함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던 나로서는 소도 외양간도 모두 잃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을까 고민된다. 올해 한국지엠의 행보를 눈여겨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조그마한 가능성이라도 기대하고 국내에 한국지엠이 머물기를 기원한다.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조용병 회장 “보육 걱정없는 일터 만든다”

### 신한금융, 세번째 직장 어린이집 '신한키즈 일산 어린이집' 개원식

신한금융그룹은 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위치한 신한은행 일산전산센터에서 그룹의 세번째 공동 직장어린이집인 '신한키즈 일산 어린이집' 개원식을 가졌다.

신한금융은 2017년 3월 서울 강북구도봉로에 위치한 '신한이 강북어린이집'을 시작으로 작년 9월 서울 중구 을지로에 '신한 꿈나무어린이집'을 개원 한데 이어 세 번째로 '신한키즈 일산 어린이집'을 열었다.

연면적 550㎡(약 166평) 규모의 '신한키즈 일산 어린이집'은 모든 시설과 인테리어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으며, 보육실, 도서실, 실내놀이터 등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다양한 교육시설도 마련했다.

직장어린이집 전문 위탁운영기관인 푸르니보육재단과 협력해 만 1세부터 5세까지 70여명의 아이들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그룹 소유의 유휴 공간을 적극 활용해 보육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사진 중앙)이 6일 고양시 일산서구에 위치한 신한은행 일산전산센터에서 그룹의 세번째 공동 직장어린이집인 '신한키즈 일산 어린이집' 개원식을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로 업무에 집중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한키즈 일산 어린이집'은 약 20여명의 지역 내 보육 교사 채용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상생의 모델도 만들었다.

이날 행사에는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을 포함한 그룹사 임직원들과 푸르니보육재단 김은기 대표 및 직원 학부모 6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직원 학부모들은 신한금융의 전 그룹사에서 운영 중인 유연근무제를 사용해 행사에

참석하면서 자녀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조 회장은 “직원들이 편히 아이를 맡기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이들 보육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신한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발달이 가정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미래세대의 주역인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사업도 계속해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인사

- ◆ 한국고전번역원 △번역사업본부장 이규옥 △기획처장 박재영 △고전번역교육원 교무처장 조순희 △번역사업본부 고전문헌번역실장 김성애 △번역사업본부 역사문화번역실장 이정원 △번역사업본부 출판콘텐츠실장 이선주 △경영지원본부 운영지원실장 박선준 △경영지원본부 총무관리실장 최태수 △고전번역교육원 교무행정실장 고종석
- ◆ 건양대학교병원 △고객만족팀장 홍의혁 △판재팀장 이한상 △원무1팀장 김두열 △새병원준비팀장 김희중 △총무팀장 강인구 △의료기기중개임상시험센터부센터장 김훈 △원무2팀장 허은경 △감염관리실팀장 김재연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급 승진 △기획재정담당관 박상옥 ◇4급 승진 △청정실 임시혁
- ◆ 한국천문연구원 △정책부장 김영수

### 부음

- ▲ 김원호(전 농구인)씨 별세, 김영기(베스티이엔텍 차장), 김혜숙 부친상, 양성욱 시부상, 이희성(버네이스 애플트리 대표) 장인상 = 5일 오후 4시30분, 고대구로병원, 발인 7일 오전10시30분, 070-7606-4176.
- ▲ 조순옥씨 별세, 고준환(경기대 명예교수)씨 부인상, 고상규(현대해상 차장)·고원규(JAC리크루트먼트 컨설턴트)씨 모친상, 조영마·홍영희씨 시모상 = 6일 오전 0시30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발인 8일 오전 11시, 02-3010-2237.
- ▲ 객찬홍 씨 별세, 김형수(중부일보 시흥주재부장)씨 장인상 = 6일 오전, 광주보훈병원 장례식장, 발인 8일 오전 7시, 062-973-9166.
- ▲ 이순옥(여성중앙회 명예회장, 장호테니스재단 명예이사장)씨 별세, 홍순성(전 수원대 공과대학장)·홍순호(주계통산업 회장)·홍순용(송실대 겸임교

- 수)·홍선자·홍민자·홍선희씨 모친상, 예봉재·김정순·화하실씨 시모상, 배도환(전 중앙대 의대 교수)·박철(취대동공업 대표이사)씨 장모상, 홍준표(취대동공업 대표이사)씨 조모상 = 6일 오전 4시35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발인 8일 오전 10시, 02-3010-2292(7일 오전 10시부터 02-3010-2263).
- ▲ 권성근(전 공군작전사령관)씨 별세, 태신(전 국무총리실장·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한국경제연구원 원장)·세란(대림대 교수)·정란(TJU어학원 원감)씨 부친상, 김양숙씨 시부상, 이정현(금진대)·최광진(순천향대 교수)씨 장인상, 권영보(두산중공업 과장)씨 조부상 = 5일 오후 9시 45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 8일 오전 7시, 02-3410-6912.
- ▲ 권옥승씨 별세, 권기환(동국대 교수)·권성연·권혜진씨 부친상, 김진수(GSK 부사장)·신광열(자영업)씨 장인상 = 5일 오후 10시45분, 삼성서울병원, 발인 8일 오전 11시30분, 02-3410-6902.